

## 강렬공(剛烈公) 차운혁(車云革) 선조의 사적(事蹟)

연안차씨(延安車氏) 득관조(得貫祖) 차효전(車孝全)의 21세손 조선 초기의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강렬공(剛烈公) 차운혁(車云革) 선봉대장(先鋒大將, 이하 '대장'으로 부름)은 연안차씨(延安車氏) 강렬공파의 중시조(中始祖)이자 파조(派祖)이다. 대장은 조선 태조 2년(서기 1393년) 차견질(車堅質)과 김의(金義)의 따님 사이에서 태어나셨는데, 출생지는 황해도 연안(延安)이다. 대장의 자(字, 관례 이전에 부르는 이름)는 홍기(弘器)이고, 호(號)는 쌍청당(雙淸堂) 또는 송암(松庵)이다. 대장의 성품은 강직하고 충성스러우셨으며 학문을 가까이 하시고 인덕(仁德)을 높이 쌓으셨을 뿐 아니라, 역사와 병법(兵法)에도 통달하시었다. 게다가 키가 크고 멋진 수염을 기르고 기풍이 당당하고 늠름하시어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웠다.

###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시다가 순국하시다

조선 태조(太祖) 7년(서기 1398년), 대장의 숙부로서 고려 말 성리학의 대가였던 차원부(車原頰)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하륜(河崙 등 이른바 사열(四孽)에 의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살해되고 대장의 가족은 함경도로 유배되자 대장은 길주(吉州), 회령(會寧) 등지를 전전하며 유배생활을 하시었다. 그러다가 태종 임금 때 차원부의 억울함이 밝혀져 신원(伸冤)이 되자 대장도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시었다. 그러자 대장이 만60세 때인 단종 원년(1453)에 한양(서울)으로 올라와서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좌부(忠佐衛左部) 소속 겸사복(兼司僕, 왕의 호위 군사)이 되셨다. 그러나 세조 3년(1457), 세조가 영월로 쫓아냈던 단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대장은 벼슬길에서 물러나시어 양주(楊州) 도봉산(道峯山) 아래에서 은거생활을 하시었다.

그 때인 세조 13년(1467) 5월, 전(前) 회령부사 이시애(李施愛)가 동생 시합(施合), 시백(施伯)과 함께 함경도에서 난(亂)을 일으키자 세조 임금은 이준(李濬, 1441~1479)을 사도병마절도사(四道兵馬節度使) 겸 도총사(都摠使)로 임명하여 반란군을 진압토록 했다. 그러자 이준이 임금께 “재주와 용맹이 있는 사람을 뽑아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조정의 문무백관들이 차운혁 대장을 천거하면서, “그는 회령 사람으로 재주와 용맹이 뛰어나고 또한 회령 지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병법(兵法)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이에 세조 임금은 대장을 불러 어모장군(御侮將軍) 충좌위좌부(忠左衛左部) 사직(司直, 정5품 무관) 겸 정북선봉대장(征北先鋒大將)으로 임명했다. 5월 18일 도총사 이준은 부사(副使) 조석문(曹錫文) 이하 대장을 비롯한 여러 군관(軍官) 등을 거느리고 세조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함경도 전쟁터로 떠났다.

전쟁터에 도착한 대장은 군관 정휴명(鄭休明)·조규(曹糾)·박성장(朴成章) 등과 함께 마운령(磨雲嶺)에서 적진에 뛰어들어 이시애의 동생 시합과 시백을 붙잡아 서울로 압송하려는 중에 대장의 부장(副將) 최윤손(崔潤孫)이 배반하여 시합과 시백을 풀어주고 적군에게 관군(官軍)의 군사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시애가 수많은 반란군을 이끌고 침공해왔다. 이에 대장은 용기를 내어 적병(賊兵) 수백 명을 단칼에 무찌르셨다. 그러나 관군의 열세로 마침내 정(鄭)·조(曹)·박(朴) 세 사람과 함께 대장도 적군의 포로(捕虜)가 되자 이들을 적군은 단천(端川)의 감옥에 가두고 하루에 세 번씩 악형(惡刑)을 가하면서 항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장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 높여 적들을 마치 개를 꾸짖듯 하시다가 마침내 순국하시니 때는 세조 13년(1467년) 8월 6일이었으며 대

장의 연세는 만74세이셨다.

이때 관군이 적군을 물리치며 단천으로 들어가 보니 사방에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고 감옥 안에 죽은 사람의 시체만 네 구(軀)가 있었는데 모두 머리통이 박살나고 한 사람의 얼굴에는 말뚝을 박아 놓았다. 얼굴에 피가 엉겨 붙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으나 얼굴을 씻기고 보니 말뚝에 막힌 사람은 대장이셨고 나머지 세 사람은 정휴명·조규·박성장 이었다. 이들을 본 관군은 즉시 단천 군수(郡守) 염상항(廉尙恒)에게 관(棺)과 짚을 준비하게 하고 또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8월 8일) 그리고 대장의 시신을 모시고 정평부(定平府)에 이르자 관이 갑자기 무거워져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일을 세조 임금의 전해 듣자 예관(禮官)을 보내서 정평부(현 함경남도 정평군) 남문산면(南文山面) 윤봉리(輪峰里) 비석동(碑石洞)에 있는 광석령(廣石嶺)의 해좌(亥坐, 북북서를 등지고 남남동쪽을 바라보는 못자리)에 예를 갖추어 대장을 장사지냈다.

### 세조 임금님이 적개3등공신으로 책록하고 군호도 내려

세조 13년(1467년) 8월 이시애와 그의 동생들은 마침내 관군에 붙잡혀 처형되고 그들의 머리는 효수(梟首),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달아 사람들이 구경토록 하는 것)되었다. 그리하여 이시애의 난이 3개월 만에 모두 평정되자 이에 공(功)을 세운 사람들에게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조정에서 시작했다. 그러자 세조 임금께서 “반란 진압에 공이 있으나 죽어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찾아서 포상하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자 이시애 난의 평정 책임자였던 도총사 이준(李濬)이 세조 임금님께 아래와 같이 대장에 대한 포상을 건의했다.

“회령(會寧) 사람 사직(司直) 차운혁은 분격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대의(大義)를 수창(首唱, 제일 먼저 주창함)하여 바로 적의 예봉(銳鋒)을 꺾고 이시합을 잡다가 끝내 죽음을 당했고 종성(鐘城)사람 검사복 정휴명, 부령(富寧)사람 검사복 조규, 경성(鏡城)사람 박성장과 단천(端川)사람 신원후(申元厚) 등이 차운혁을 따라 이시합을 잡다가 도리어 적병에게 해를 당했으니 추록(追錄, 포상자 명단에 추가함)할만 합니다. 차운혁은 적개(敵愾) 3등 공신으로 나머지는 당상관 벼슬을 주어서 노비 4구(口)와 전지(田地) 40결(結, 논밭 넓이의 단위, 시대에 따라 넓이가 달랐음)을 주고 직계 자식들에게는 2자급(資級, 벼슬아치의 위계 2등급)을 초자(超資, 건너 뛴)하여 관리로 녹용(錄用, 채용)해야 합니다.”(세조실록, 4권 세조 13년 10월 14일조)

이러한 이준의 건의에 따라 세조 임금님은 대장에게 적개(敵愾) 3등 공신을 책봉했다. 이때 세조 임금은 대장을 포함하여 이시애 난의 평정에 공을 세운 모두 44명(1등 공신 10명, 2등 공신 23명, 3등 공신 11명)에게 ‘적개공신’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한 달 뒤 세조 임금은 적개공신들을 모두 불러 축하 잔치를 베풀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서(敎書, 임명장)를 내리며 치하하자 공신들이 꿇어앉아 받았다. 대장의 차례가 되자 세조 임금은 돌아가신 대장에게 ‘정충적개공신’(精忠敵愾功臣)이라는 칭호와 함께 ‘가정대부 병조참판’(嘉靖大夫兵曹參判, 오늘날의 국방부차관에 해당) 벼슬도 내리고 또한 ‘연천군’(延川君)이라는 군호(君號)도 하사하면서 마치 대장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왕은 이르노라 적개(敵愾)하여 절개(節介)로 항거하고 능히 험난하거나 평탄하거나 변함이 없었으니 덕을 높여 공(功)을 보답함이 어찌 살거나 죽거나 간격이 있겠는가? 의리를 헤아려 보면 그

러한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로다. 생각건대 그대는 마음가짐이 충직하고 기력(氣力)이 남보다 뛰어났다. 하여 향오(行伍, 군대의 대오)에 발탁되어 검사복을 맡기니 효용(驍勇, 사납고 날쌘)하다는 명성이 들렸다. 지난번에 적신(賊臣) 이시애가 그의 동생 이시합과 더불어 불궤(不軌, 반역)를 모의하고 몰래 한 지방에 웅거하여 군사를 일으키니 기세가 치열하여 흉악한 기함(氣焰, 기운)이 바야흐로 성하였다. 그러자 그대가 충분(忠憤)을 이기지 못하여 갓끈을 청하여 바로 달려가서 단신(單身)으로 적의 진중에 들어가 몰래 친사(親土, 반란군의 측근)를 효유(曉諭, 깨달아 알아듣도록 타이름)하고 이시합을 사로잡아 바야흐로 수레에 실어 한양으로 보내려다가 도리어 힘이 부적(不敵, 적에 대항할 수 없음)하여 길에서 이시합의 도당(徒黨)에게 잡히었다. 중옥(重獄,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 속에 갇히었다가 적군들이 패주하게 되자 [대장의] 머릿통을 도끼로 쳐서 죽였다. 그대가 적도(賊徒)에게 ‘섬멸시킨 다음에야 그만두겠다’고 맹세하였기에 적들이 그대에게 보복하기를 지극히 참혹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아아! 세 번 이기려는 장한 뜻을 펴지 못하고 도리어 삼목(三木, 죄인의 목·손·발에 각각 채우던 형구인 나무칼·수갑·차꼬를 말함)의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적에 대한 분노의 눈을 죽어서도 오히려 감지 못하였으리라. 적이 이제 머리를 바치니 그대는 반드시 마음이 통쾌할 것이다. 내가 그대의 뜻을 불쌍히여기니 그대는 내 마음을 알라.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마땅히 남보다 먼저 해야 하므로 이에 그대에게 책훈(策勳, 임금의 신하의 공을 찬양하여 상을 줌)하니 이르거든 수령할 지어다. 아아! 충훈과 장한 넋이 영령(英靈)으로 오히려 살아있으리라 생각하니 끼친 음덕(蔭德, 조상의 덕)과 꽃다운 이름이 자손에게 미치기를 바라노라.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일조)

위와 같이 적개공신 3등에 책록된 대장은 종2품 상계(上階)에 해당하는 가정대부 병조참판으로 추증되고 ‘연천군’이라는 군호와 함께 노비 80구, 밭 80결, 은(銀) 20근, 옷 1벌과 말 1필을 하사 받았다. 또한 대장의 큰 아들 의중(義重)도 벼슬을 받았다.

### 역대 임금들도 대장의 충절을 잊지 않고 계속 추증

조선 제7대 임금인 세조가 대장을 적개공신으로 책록한 뒤에 역대 임금들과 조정의 관료는 물론이고 재야의 유림(儒林)과 백성들도 대장의 충절을 결코 잊지 않았다. 제9대 성종(成宗, 1470~1494) 임금은 대장의 초상을 그려 기린각(麒麟閣, 주요 공신들의 초상화를 걸어 두는 건물)에 보존하게 했다.

제11대 임금인 중종대왕(中宗大王)은 중종 9년(1514), 대장의 사적(事蹟)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수록토록 명령했는데(승정원일기 순조 8년 8월 25일조), 『삼강행실도』는 본래 세종 16년(1434)에 집현전 부제학 설순(僉循)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충신·효자·효부·열녀 등의 사적을 소개하면서 각 사례마다 삽화를 하나씩 그려 넣었다. 그리하여 백성, 특히 어린이들이 책을 펴서 한 번만 눈으로 보아도 충신·효자 등에 대한 감동된 마음과 애절한 심경이 자연히 생기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책에 대장의 공적도 기재하라고 중종 임금이 명령하자 대제학 신용개(申用溉) 등이 본래의 『삼강행실도』에 들어 있지 않은 뛰어난 효자 36인 충신 6인 열녀 28인의 사례를 추가해서 1514년(중종 9)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이라는 책으로 간행했다. 바로 이 책의 충신편(忠臣篇)에 대장의 공적도 기재했는데, 이를 보면 대장이 이시애 등의 반란군을 토벌하는 장면의 그림 하나를 넣고 대장의 공적을 소개한 뒤 끝머리에 대장을 찬양하는 중종의 시(詩) 2수(首)를 넣었다. (맨 아래, 어제시(御製詩) 2수(首) 참조)

제23대 임금인 순조(純祖)가 1826년(순조 26년) 행차를 하는데 길가에 영남 유생 100여 명이 엮드려 아뢰기를 “고(故)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특증(特贈) 가정대부(嘉靖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연천군(延川君) 차운혁(車云革)은 관북(關北) 이시애의 난을 만나 창의(倡義, 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하여 용맹을 떨쳐 적군을 무찔러 창궐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보잘 것 없는 군대로 적을 대적하다가 힘이 다해 잡혀서는 적을 꾸짖기를 개를 꾸짖듯이 하다가 마침내 순국하였습니다. 충(忠)으로 공을 세운 사람은 법에 따르면 모두 시호(諡號)를 내려야 할 자에 해당하나 거의 3백여 년 동안이나 차운혁에게 시호를 내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진실로 조가(朝家, 조정)의 궤전(闕典, 빠진 부분이 있는 의식)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소를 들은 순조 임금이 그 내용을 이조(吏曹)에 하달하니 이조가 말하기를, “대전(大典, 법전)을 살펴보니 공신은 비록 직책이 낮더라도 정2품으로 증직(贈職, 죽은 사람에게 벼슬을 내림)하는 것이 또한 증시(贈諡, 죽은 사람에게 시호를 내림)의 예입니다. 차운혁이 적을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고인에 비추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으니 증작(贈爵, 죽은 뒤에 작위를 줌)과 증시(贈諡)를 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상서를 올리니 순조 27년(1827)에 윤허하였다(洪奭周, 『淵泉先生文集』 제33권 「諡狀」, ‘贈戶曹判書延川君車云革諡狀’에서 인용). 그리하여 여러 가지 준비 끝에 순조 30년(1830) 임금은 대장을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 오늘날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슷)로 추증(追贈, 죽은 뒤에 벼슬의 품계를 올려 줌)했다.

그러나 이때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호는 내리지 않았다가 다음 임금인 제24대 헌종(憲宗)이 헌종 7년(1841)에야 대장에게 ‘강렬’(剛烈)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승정원일기 헌종 7년 2월 21일조) 그리하여 이때부터 대장을 ‘강렬공’이라고 부르고 그 후손들은 연안 차씨 ‘강렬공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 마침내 정려문을 세워 대장의 충절을 기림

이와 같이하여 대장께서 ‘강렬공’이라는 시호는 받았으나 충신정려문은 받지 못하셨다. 그랬다가 제25대 철종(哲宗) 임금이 ‘철종조 11년 경신 윤3월’(양력 1860년 4~5월)에 대장의 정려문(旌閭門)을 세워 모든 백성들이 그의 충절을 기리도록 하라고 아래와 같이 하교(下敎, 명령)했다.

忠臣	(충신)
世祖朝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세조조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
贈 資憲大夫 戶曹判書 兼	(증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
知義禁府五衛都摠府都摠管	(지의금부오위도총부도총관)
延川君 諡 剛烈公 車云革之門	(연천군 시 강렬공 차운혁지문)
哲宗朝十一年庚申三月 日	(철종조십일년경신삼월 일)
命 旌閭	(명 정려)

이러한 철종 임금의 명령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괴량리 산59번지에 ‘충신차운혁정려지문(忠臣車云革旌閭之門)’을 세웠는데 언제 세웠는지는 그간에 기록을 발견하지 못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정려각을 해체·복원하면서 대들보의 단청을 벗겨보니 상량문이 나타났는데 ‘光緒五年乙卯潤三月十七日未時立柱上樑’이라고 적혀 있었다. 즉 ‘광서5년(光緒, 중국연호

로 우리나라 고종 16년에 해당, 서기로는 1879년) 기묘년(己卯年) 윤3월(양력 5월) 미시(未時, 13~15시)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그 뒤 137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정려각을 개수했으나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둥과 석가래 등의 재목이 일부 썩고 기와도 낡았다. 이에 2016년 화성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개수하였다. (2005년 12월 1일 정려각이 화성시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었음)

### 적개공신 강렬공 차운혁 선봉대장 연보(年譜)

조선 태조 2년(서기 1393): 황해도 연안(延安)에서 아버지 차견질(車堅質)과 어머니 김(金)씨 사이에서 태어남. 자(字)는 홍기(弘器), 호(號)는 쌍청당(雙淸堂) 또는 송암(松庵)

태조 7년(1398년) 숙부 차원부(車原攄)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하륜(河崙) 등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살해될 때 가족과 함께 함경도에 유배됨

세종 ?년(재위 1418~1450) 차원부의 억울함이 밝혀져 신원(伸冤)되자 공(公)도 유배에서 해배 단종 원년(1453) 한양(서울)으로 올라와 어모대장(禦侮將軍) 충좌위좌부(忠佐衛左部) 소속 겸사복(兼司僕, 왕의 호위 군사)이 됨

세조 3년(1457) 세조가 단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 벼슬길에서 물러나 양주(楊州) 도봉산(道峯山) 아래에서 은거

세조 13년(1467) 5월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이 일어나자 어모대장(御侮將軍) 충좌위좌부(忠左衛左部) 사직(司直, 정5품 무관) 겸 정북선봉대장(征北先鋒大將)에 임명됨.

5월 18일, 함경도로 출병하여 반란군과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 8월 6일 단천(端川)의 감옥에서 순절(당시 연세 만74세). 정평부(定平府, 현 함남 정평군) 남문산면(南文山面) 윤봉리(輪峰里)에 안장됨

세조 13년(1467) 9월 ‘정충적개공신’(精忠敵愾功臣) 칭호와 함께 ‘가정대부 병조참판(嘉靖大夫 兵曹參判, 오늘날의 국방부차관에 해당) 벼슬 및 ‘연천군’(延川君) 군호(君號)를 하사 받음. 또한, 노비 80구(口) 밭 80결(結), 은(銀) 20근, 옷 1벌과 말 1필 하사받음

중종 9년(1514):공의 공적이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라는 책에 기재됨

순조 27년(1827)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 오늘날의 기획재정부장관과 비슷)로 추증(追贈, 죽은 뒤에 벼슬의 품계를 올려 줌) 받음

현종 7년(1841) ‘강렬’(剛烈)이라는 시호(諡號) 받음. 이때부터 공을 ‘강렬공’이라고 부르고 그 후손들은 연안 차씨 ‘강렬공파’로 부르게 됨

철종 7년(1856) 유상을 제작하여 철곡 연계사(沿溪祠)에 모심 (2021. 9. 1 한국고미술협회로부터 진품(眞品)으로 감정 받음)

철종 11년 공신정려문(功臣旌閭門)을 하사 받아 고종 16년(1879) 화성시 정남면 괴랑리에 정려각(旌閭閣)을 세움. 2005년 12월 1일 화성시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됨

고종 31년(189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불천위(不遷位) 부조묘(不祧廟) 건립

대한민국 2022년 부조묘 외삼문 좌측에 강렬공 차운혁 사적비(剛烈公 車云革 事蹟碑) 근수

증서번호 KAA 00513	 <b>鑑定證書</b> CERTIFICATE OF AUTHENTICITY	발행번호 20211398
작품명 Title of Work 剛烈公 雙清堂 車云革 肖像畫	제작년도 Date 朝鮮後期	
작가명 Artist	제작기법 Medium / Technique	
규격 Size 102×60cm	비고 Reference 임오본으로 사료됨	
		
	사단법인 韓國古美術協會 鑑定委員會의 감정에 의거, 본鑑定證書를 발행함 We, authenticate the above described artwork as follows : <small>감정위원은 감정결과가 담합을 고의로 조작한 경우가 아니면, 감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자, 취득자등에 법률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small>	
	작품의 감정 결과 眞品 眞 Deemed Authentic	
	작품의 감정 시가 Fair Market Price	
20 21年 09月 01日		
이 감정서는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작품과 함께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small>This Certificate of Authenticity can not be reissued. Please keep it carefully with the artwork.</small>	 社団法人 韓國古美術協會 KOREA ANTIQUES ASSOCIATION	

칠곡 연계사(沿溪祠)에 봉안되었던 강렬공(剛烈公)의 유상(遺像)이 2021. 9. 1 한국고미술협회로부터 진품으로 감정받아 현재는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향은 향습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의 형식으로 모셔져 있다.

위 글의

작성자 : 차병찬(연안차씨강렬공파총친회 회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52 101-1205 (현대@)

010-6385-0701

추천인 : 차영규(부산 차릉(車陵)보존협회 회장)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47번길 67 (대연동)

010-3070-5317

차순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010-2502-2914

(연안차씨 칠곡문중 종손,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차상무)